

‘보호무역 확산’ 수출 차질 24억 달러

한국은행 보고서 지난해 직·간접 규모 통관수출의 0.5%... 2017~2020년 중 0.8%로 확대 전망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가 지난해 통관수출의 0.5%에 해당하는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21일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무역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지난해 0.5%(24억 달러), 올 1~9월 0.7%(24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2020년 통관수출의 0.8%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적 전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호무역조치는 통상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비관세조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규제조치’와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가 대표적이다.

과거 추세를 보면 무역규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무역규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관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규제로 인한 지난해 수출 차질규모를 추정한 결과 통관수출의 0.4%에 해당하는 22억 달러(명목GDP의 0.16%)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 1~9월중 이 규모는 22억 달러(통관수출의 0.6%)로 예상됐다.



싱가폴 SATS 삼성 기어 S3 이용

싱가폴 항공의 지상 업무를 제공하는 SATS는 삼성 기어 S3를 지상근무 직원들의 업무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SATS와 파트너십을 맺고 LTE 통신 기능이 지원되는 기어 S3 130대를 공급했다. SATS 직원이 기어 S3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무역규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계·전자, 자동차는 제조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보호무역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무역규제조치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정도 증가했으며,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8~2009년 18건에 불과했던 무역규제조치는 2014~2015년 41건으로 늘었다. 지난

달 말 누적 기준으로는 총 182건이며 이중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수준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미국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내년 집값 오른다’ 전망 3% 그쳐

KB국민은행, 은행·증권 자산가 고객 대상 설문조사

내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은행·증권 자산가 고객의 비중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투자자문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은행·증권 자산가 1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 80명과 PB센터·영업점 고객 40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 보합(49%)과 하락(48%)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상승을 내다본 자산가는 3%에 불과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수로는 부동산정책(35%)과 시중금리(33%)가 주요 변수로 꼽혔고 입주물량과 정치 상황은 각각 8%로 집계됐다.

희망 임대 수익률은 연 5%대로 답한 자산가들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6%대(26%), 4%대(12%) 순이었다.

또 수익형 부동산의 선호 유형은 상가빌딩이 전체의 74%를 차지, 상가빌딩에 대한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군산항 11월까지 물동량 전년 대비 5% 증가

군산항 11월까지의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군산항 항만 물동량은 1771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전체화물 중 수출은 차량 및 부품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346만4000톤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양곡, 슬래그, 당류 등의 증가에 힘입어 6% 증가한 1118만7000톤을 기록했다.

수출입 화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으며 연안화물(유류, 모래, 시멘트 등)의 경우 305만9000톤으로 5% 감소했다.

특히 주요 수출화물인 자동차 전체 물량이 17만7214대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회사별로 보면 기아자동차(↑20%)는 증가한 반면 현대자동차(↓9%)와 한국GM(↓36%)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주요 수입화물인 시료원료는 427만2000톤으로 4% 감소했다. 컨테이너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5만420TEU를 처리했으며 회사별로 GCT가 38% 증가한 1만 7809TEU, 석도국제해리가 21% 증가한 3만1261TEU를 각각 처리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융합섬유연, 실크 니트 의류제품 개발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중소기업청의 산연전용기술개발사업인 ‘실크 견방사 자카드 편직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류제품 개발’ 사업을 약 1년간 수행하여 성공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연전용기술개발사업은 산연이 보유한 분야별 선도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익산에 있는 ㈜신성실크(대표 한정수)와 같이 기술개발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1.7억 원이었다.

이번 사업은 심미성 및 친환경성이 우수한 견방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 발현이 가능한 자카드 편직기술 및 DTP(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장비를 이용하여 디자인성이 우수한

Knit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실크 소재의 경우 일반적인 제직기술을 활용한 원단 조직의 형태로 다양한 상품화 연계 및 디자인의 다양성 발현이 제한적으로 심미성 등 디자인성이 우수한 니트 원단 개발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0종 이상의 실크 니트 의류제품을 개발했으며, 개발 제품을 미주 지역의 BC America로 판매 협상이 이뤄져 수출이 계획되고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김영은 팀장은 “면 섬유 위주의 내의류 중심에서 실크 소재를 이용한 아웃웨어로 생산 품목을 다변화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주도적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지난해 소득보다 빚 갚는데 쓴 돈 더 늘어”

지난해 가계는 소득보다 빚 갚는데 쓴 돈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전방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2015년 가구 평균소득은 4883만원으로 1년 전 4770만원에 비해 2.2%(113만원) 늘어났는데 그쳤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같은 기간 941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13.7%(130만원)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다는 게 제윤경 의원의 설명이다.

가계의 빚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원리금상환부담률)도 26.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사상

최저의 저금리 기조에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만 7.5%포인트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371만원(1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원리금상환액은 374만원(53.7%)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말 기준 165.4%로, 전년 대비 6.1%

포인트 뛰었다.

제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넘게 심각해지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이라며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구 소득 113만원 늘 때 원리금상환액 130만원 증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말 기준 165.4%로, 전년 대비 6.1%

포인트 뛰었다.

제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넘게 심각해지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이라며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